

#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최대 0.65%p 인하

###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8000억 원 규모 신용카드 수수료 순(純) 인하 여력을 확인하고 이를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3%에 달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가 최대 0.65%p 인하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

당정은 원가요인 재산정 결과, 수수료 인하여력을 1조4000억원으로 집계했다. 단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추진된 우대 수수료를 적용대상 확대,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재대행업체(PC) 이용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감안해 순(純) 인하여력을 8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당정은 수수료 순 인하여력을 내수 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

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는 우대수수료를 확대 적용한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한다.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는 현행 약 2.21%에서 1.6%로 낮춘다.

김 의장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를 적용을 통해 185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당정은 카드수수료를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추진한다. 부가가

치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지나친 외형확대 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도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약관 변경 심사 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영태 기자



### 농협은행 'NH올원해봄적금' 출시 기념 SNS 이벤트 펼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디지털 금융상품 'NH올원해봄적금' 출시 기념으로 SNS 이벤트 '인샷, 굿샷'을 12월 21일까지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NH올원해봄적금'은 올원뱅크에서 '해봄하기' 목표설정을 통해 금연, 다이어트 등 자신만의 도전목표를 설정, 매일 도전을 성공할 때마다 간편한 버튼 클릭 한번으로 적금에 입금이 가능한 올원뱅크 전용상품이다.

이벤트 참가방법은 개인SNS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NH올원해봄적금 해쉬태그, 인샷을 게시한 뒤 농협은행 공식SNS 금차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에어팟(3명), 스타벅스 커피쿠폰(50명)이 지급, 당첨자 발표는 12월 26일 농협은행 공식 SNS에서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고객센터 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농진청, 사과·배 잘 키운 우수 농업인 5명 선정

농진청청은 '사과·배 국내육 상품종 품질평가회'를 열어 우수 농업인 5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행사는 농진청이 연구·개발(R&D)한 사과 품종인 감홍·황옥·투비에스·피크닉과 배 품종인 추황배·황금배를 재배하는 농업인 28명이 직접 생산한 과수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리다.

대상의 영예는 울산시에서 황금배를 키우는 윤동연씨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강원 원주시에게 배를 재배하는 조덕희씨와 경북 문경시에게 사과를 키우는 천대명씨가 각각 받았다.

우수상은 전남 나주의 배 재배농부 권상준씨와 전북 남원의 사과 재배농부 윤준씨가 각각 차지했다. /김영태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향후 30년 경쟁법 집행 죄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향후 30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면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쳤고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야당이 버리고 있어 통과까지 단만향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인해 찬반 양측의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쉽지 않은 입법과정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도 여당대로 힘을 보태고 있다.

민 의원은 공정위와 별개로 더 강도가 센 전부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민 의원 안과 정부안을 두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의 종합적 개선,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라는 큰 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마련, 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도입 등 일부과제에 있어서는 정부안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며 "이외에도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한도 추가 설정,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정부안에 비해 규제의 강도를 높였다는 특징도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이해관계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학계에서 참여했다. /김영태 기자

## '농업·농촌 생각하는 마음이 한데 모여'

### NH농협은행,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 출시 56일만에 10조원 돌파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9월 출시한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이 출시 56일 만에 11월 21일로 10조원(전북은 8,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호 고객으로 가입 시작으로, 출시 14일만에 1조원 돌파, 출시 56일만에 10조원 돌파라는 놀라운 실적을 이뤘다.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의 인기 비결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고객 부담은 전혀 없고 예금 가입만 하면 판매액(연평균잔액)의 0.01%를 농협은행이 부담, 농산물 소비 촉진, 가격안정 등 공익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9월 출시한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이 출시 56일 만에 11월 21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는 상품으로, 출시 전부터 직영교육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다"며, "무엇보다 농업, 농촌을 생각하는

고객들 마음이 한데 모여 훌륭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농협상호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취급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상호금융권 최초 주택연금 취급·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지난 2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최초로 주택연금 취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내년 1/4분기 중 '주택연금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이 소유한 주택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 집에 평생 거주,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금융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서 100% 보증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상호금융은 대도시 위주로 취급하던 주택연금 대출상품을 농촌지역까지 확대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농협은 전산개발, 테스트를 거쳐 내년 초까지 전국 농, 축협 영업점을 통해 주택연금을 신청,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소성모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빈곤을 심화

로 노후대비에 취약한 농가에 따른 노후생활자금 지원으로 농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주택금융공사와 상호 협력, 농업, 농촌에 안정적인 주택연금을 공급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